

## 世界資源問題의 政治·經濟的局면



矢島 釣次  
(東京工大 教授)

### 시급한 資源配分의 再定立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국제적 자원부족현상에 대해 관계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등을 열어 그 대응책마련에 크게 고심하고 있다. 9월중에 열린 「資源 및 공산권문제 세미나」에서도 자원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논의 되었는데 연사로 참석한 矢島釣次교수(東京工業大學)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본다.

#### ◆ 實驗時代에의 挑戰

現在의 世界는 극히 多面的이고 流動的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即 文明社會가 前進하고 있는 한 時點에 서서 다음 方向, 다음 社會의 質을 觀察하고 이에 符合되는 새로운 文化의 創造를 劃하는 實驗時代로 들어갔다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實驗時代는 곧 「트라이얼 앤드 에러」(Trial and Error)의 時代이다. 例를 들면 世界經濟全體를 考察할 때 「트라이얼 앤드 에러」내지는 다음 時代를 規定하기 위해서 가로 놓여 있는 至大한 問題로서 代表的인 것으로는 國際通商, 通貨問題 및 에너지問題로 集約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各國은 각기의 事情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 世界戰略을 세워 이에 對處하며, 새로운 問題에 對備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世界現實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國際經濟·通商·通貨 및 에너지問題 등등은 單純한 經濟問題로서만 認識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問題인 同時에 世界戰略의 一環으로서의 政治問題 또는 多極化 構造를 가진 世界經濟에 있어서는 극히 「그로발」(Global)한 性格을 가진 것으로서 理解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政治, 經濟, 文化, 宗教 등을 包含한 問題로서 現在 提示되고 있는 諸問題에 대한 解決方向을 多面的으로 把握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 ◆ 美國의 石油不足과 世界戰略

美國은 最近 갖가지 努力을 통하여 國際的 友宜改善, 通貨面에서의 安定勢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問題로 남아 있는 것은 에너지問題이다. 日本은 이 事實에 대해서 比較的 悠然한 態度를 취하고 있으나 美國을 비롯한 諸國의 에너지

지 특히 石油에 대한 問題는 극히 深刻하다.

예를 들면 지난해 美國에서 發生한 여러가지 “에너지危機”事件으로 國民生活를 위협하였었다. 「오하이오」州 「데이톤」에 있는 有名한 週刊誌 「U S 뉴스 앤드 레포트」는 1971年 12月 20日 字誌面에서 「日本과 蘇聯間의 「뉴엔」 油田開發에 있어서 美國이 強力히 參加한 事實」을 詳報한 바 있다. 美國은 石油產出額에 있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어깨를 겨누는 程度이고 또 世界二大石油產出國이지만 現在 深刻한 「에너지」危機에 直面하고 있다.

한편 越南戰이 끝난 이후 美國 最大의 問題는 역시 中東問題이다. 이것을 大別하면 石油를 中心으로한 「에너지」問題, 그리고 石油產出國인 「아랍」 諸國과 對立狀態에 있는 「이스라엘」問題로 集約된다. 卽 이 두가지 중 經濟問題와 「이스라엘」이라는 直接的인 問題와 또 「아랍」 諸國에 介하고 있는 蘇聯의 움직임에 競合하는 美國의 世界戰略이 複雜하게 얽혀서 하나의 “에너지政治·經濟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바로 오늘의 課題가 있는 것이다.

1973年 4月 18日에 내놓은 닉슨의 에너지 特別敎書를 살펴보면

1. 既存國產에너지의 迅速한 增産政策
2. 資源保存을 위한 에너지와 節約政策
3. 安全保障과 環境問題를 配慮하면서 低廉한 에너지를 供給하는 政策
4. 增産을 위한 에너지行政改革
5. 에너지 問題에 대한 國際協力
6. 新規에너지의 研究開發

등인데 특히 여기서 重要한 問題는 1項, 4項, 6項이다. 卽 天然가스, 原油, 石炭 등 既存國產 에너지를 積極開發하고 에너지資源의 自給體制를 確立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國產에너지開發政



策으로서 內務省 行政의 根本的인 強化를 圖謀하고 新規에너지의 實用化를 위해서 大規模의 研究·調査를 進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制壓함으로써 資本主義圈에 있어서의 美國의 「리더쉽」을 維持하자는 것이었다. 一般的으로 에너지를 制壓하는 者は 世界를 制壓한다고 한다. 이런 意味에서 「닉슨」의 에너지特別敎書는 世界戰略의 重要한 支柱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 ◆ 에너지政治·經濟學的 考察

美國의 에너지政治·經濟學的 觀點에서 먼저 對外經濟戰略을 살펴 보자. 먼저 美國은 石油輸入에 의하여 國際收支赤字가 25億弗에 이르고 있다. 만일 이대로 繼續된다면 80年代에는 純石油輸入金額은 무려 100億弗에 이른다. 同時에 60年代의 買入市場으로 부터 60年 後半부터 70年代에 걸쳐서의 OPEC의 「네쇼나리즘」태도와 이로 부터 賣出市場으로의 轉換에 의하여 OPEC가 매우 強力하게 되었다. 그 結果 1985년에는 中東產油의 石油收入은 急激히 增加하고 推定值이지만 金 및 弗貨의 外貨準備額은 約 1,000億弗에 이를 것이다.

1973年 2月 달러 不安時期에도 「아랍·달러」는 約 100億弗까지 150億弗이 流動했다고 하지만 만약 1,000餘億弗의 金과 弗貨의 外貨準備를 中東產油國이 「스톡크」한다면 歐羅巴諸國에 있어서의 多國籍 企業의 資金(700億弗 내지 800億弗)에 匹敵하는 극

히 流動性 있는 外貨가 될 것이다.

이 “아랍 달러”가 國際通貨不安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달러支配體制를 무너뜨릴 要因도 된다. 따라서 美國의 對外經濟 및 通貨戰略上 에너지 問題를 둘러싼 “아랍 달러”의 行方을 輕視할 수 없음은 물론 이에 대한 適切한 對策이 要請된다.

同時에 이것은 對外經濟戰略上 큰 問題가 될 것이며 또한 이는 복잡한 國內政治·經濟問題를 誘發한다.

첫째 各種 에너지 메이커間的 競合關係를 어떻게 調整할 것인가. 둘째 石油獨立生産者와 「메저」와의 對立을 어떻게 調整해갈 것인가, (이는 國內에 있어서 에너지의 自給自足問題와 世界經濟舞臺에서 石油을 獨占하고 있는 「메저」와 力關係를 美國內에서 어떻게 一元化 해서 不必要한 마찰을 피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세계 OPEC는 繼續 價格引上 攻擊을 취할 때 어떻게 이에 對處할 것인가. 세계 環境主義者의 主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私企業이건 公企業이든 間에 에너지政策을 各企業의 意思決定 속에서 어떻게 具體化시킬 것인가, 여섯째 石油 以外의 代替에너지開發政策을 어떻게 推進시킬 것인가, 일곱째, 에너지 節約問題, 環境問題에 따른 研究, 開發資金의 調整問題 등등 많은 問題들이 남아 있다.

물론 美國에는 大統領直屬下에 聯邦豫算局이 있고 그 밑에 에너지科學部가 있다. 또한 이 속에는 特別顧問, 에너지 特別委員會가 있고, 財務省에는 石油政策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으나(앞으로는 에너지 天然資源省設置도 구상중임) 이들이 擔當解決해야 할 問題들은 너무나도 山積해 있다. 물론 或者에 따라서는 「에너지危機는 하나의 픽션(小說)이다」라고 비평하고 있기도 하지만 「닉슨」의 에너지 敎書는 이를 극력 거부하고 있다.

#### ◆ 危機招來의 發端

아졌을까 그 發端을 정리해 보자.

1972年 6月 石油帝國 록펠러財閥系의 大銀行 「체이스 맨하턴」銀行의 J.G. 윙가 副行長이 發表한 「美國의 1985년까지의 에너지 展望」에 의하면 ① 美國 石油資源이 급격히 줄고 있다. ② 1985年 까지 약 50%의 石油을 輸入해야 한다. ③ 中近東原油에 의 依存度가 높아지고 있다. ④ OPEC의 힘이 強化되어 價格上昇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실 世界의 原油生産, 精油의 60%를 獨占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石油世界帝國이라고 하는 「메저」이다.

이들의 힘이 본격적으로 파시된 것은 1970~71年의 國際石油資本의 價格引上 交渉이었다. 이 價格引上 交渉 이른바 “石油戰爭”의 發端은 리비아였다. 즉 리비아의 新革命政權은 石油資源에 對한 國家支配를 宣言한 것이었다. 이로써 유럽에 에너지危機가 들어 닥쳤다. 이에 따라 OPEC 諸國의 價格引上은 기어코 관철되었고 그 결과 1971年 1月 아라비아灣 6個國과 「메저」와의 사이에 「테헤란協定」이 체결되었다.

產油國은 다시 原油價格의 引上을 요구해서 72年 1月에는 다시 8.4%의 價格引上이 斷行되었고 「테헤란」協定의 修正이 이루어졌다.

다시 72年 10月의 「뉴욕協定」에서 「메저」 7社와 產油國側의 事業參加에 관한 一般協定이 체결되었으나 이 역시 72年 12月 20月에 다시 改正되어 「리어드協定」이 이루어졌다. 이 內容을 보면 ① 73年 부터 產油國은 25%의 經營參加權을 取得한다. ② 78年 부터 每年 5%씩 事業參加持分을 증가시킨다. ③ 82年初頃 부터 OPEC는 過半數의 持分을 保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저」의 攻勢로 美國은 安全保障, 國防, 外交, 經濟, 各分野에 甚大한 威脅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美國은 첫째 에너지의 價格을 引上함으로써 國內石油資源의 開發

開發, 셋째 現環境規模를 最小化 하여 石油 등 에너지資源을 開發한다. 네째 石油의 海外依存率을 현재의 23%에서 오히려 15%로 低下시킨다는 이른바 에너지의 自給自足體制를 確立한다는 方針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 ◆ 注目되는 이란의 動向

美國의 大石油會社는 石油 以外的 資源으로서 石炭에 注目, 石炭會社를 買收하여 石炭의 「다이렉트 메카니즘」處理方法에 의한 氣化, 液化를 考慮하고 있다. 한마디로 美國의 石油會社들은 소위 「綜合에너지會社」化를 期하고 있다.

왜 美國이 이같은 길을 택했느냐 하면 그것은 過去 三年間의 石油戰爭에서 OPEC에게 敗北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OPEC의 急進三派로 일컬어지고 있는 알제리아, 리비아, 이락(특히 알제리아와 리비아는 이미 國有化하고 이락만이 國有化와 事業參加의 併用方式을 採用하고 있음)은 물론 이라니와 穩健派로 알려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最近 더욱 高姿勢로 變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콘소시엄」(美國, 英國, 佛蘭西, 和蘭 등의 石油會社로 構成된 西方側 石油會社, 예를 들면 B.P. 「로얄·터치」 「셸」 「엑소」 「모빌·오일」 「걸프·오일」 등의 借款團)과의 現行協定이 79年으로서 契約期間이 滿了되면 다시 15年間 延長한다는 柔軟한 方針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리어드」協定에 加入되지 않은 것을 理由로 이란은 強硬한 態度로 바꾸고 「콘소시엄」에 대하여 두가지 方法中 擇一을 強要해 왔다.

즉 하나는 79年の 期間滿了와 同時에 原油供給補償을 斷絶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權利權을 포기하고 그 代身 20~25年間에 걸쳐 이란으로부터 價格이 割리된 原油를 購入하는 長期契約을 締結하라는 嚴格한 內容이었다. 「콘소시엄」은 결국 後者の 것을 擇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 供給過剩時代의 終末

問題는 石油產出國 안에서 “先進石油產出國”(베네젤라, 쿠웨이트)과 “後進石油產出國”(사우디아라비아, 이락, 아브다비)으로 區分되고 石油產出國間의 南北問題에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이다.

우선 먼저 產油國으로서 近代化한 나라는 베네젤라이고 다음은 쿠웨이트이다.

그러나 後進產油國 即 아랍諸國은 앞으로 增産을 圖謀하여 國家建設과 經濟發展을 期하고 있다. 이의 典型的인 國家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브다비이며 이란도 많은 人口때문에 增産으로서 經濟發展을 圖하지 않으면 안되는 處地이다. 더구나 未開發地域을 가진 이락은 油田開發을 積極的으로 推進시키지 않으면 近代化의 길이 트이지 않을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 接近하고 있는 리비아도 產油制限을 多少 緩和하더라도 石油收入의 增大를 圖謀하지 않으면 안되는 形便이다.

한편 OPEC는 앞으로 原油價格의 引上을 劃策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今般 美國이 “金”에 대한 10% 切下를 斷行하고 OPEC는 平均 13.66%의 價格引上을 要求하여 왔다고 한다. 더구나 OPEC는 「메저」의 손에 쥐어져 있는 海運·精製 및 販賣에 이르기 까지 손을 뻗으려는 움직임마저 있다. 一例를 든다면 OPEC는 아랍石油會社와 아랍탱커會社의 設立을 決定하고 탱커會社는 탱커를 保有하고 直接 販賣原油를 輸送함으로써 船賃을 減자는 計劃까지 세우고 있는 것이다.

아름은 60年代의 供給過剩時代는 이제 終末을 告하고 값싼 中東原油의 支配를 繼續해온 「메저」는 OPEC의 銳利한 움직임 앞에서 不得已 다른 길을 擇하지 않으면 안되는 現實에 直面한 것이다.

#### ◆ 國際通貨體制와 蘇聯의 動向

아름은 全美石油協議會가 「에너지 危機가 아니

다」라는 데이터를發表했던 간에 우리들은 有限한 資源을 보다 効率的으로 使用하고 資源配分の 바른 「패턴」을 世界的인 規模로 세울 必要가 있다는 것은 두 말할 餘地조차 없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新興「유로 달러」로서의 「오일 달러」의 움직임이다. 今年 2월에 始作하여 50日間에 걸친 戰後 最大의 國際通貨危機가 바로 「유로 달러」에 의하여 惹起되었다고 말해 지지만 여기서 또하나의 要因으로서는 OPEC의 石油收入金の “스톡크” 即 「아랍 달러」가 暗躍한 事實이다.

지금 「아랍 달러」는 뉴욕, 런던, 후랑크푸르트 등 世界的 金融市場에서 相當한 注目을 받고 있다. 「아랍 달러」, 「오일 머니」로 불리워지고 있는 資金은 世界的인 에너지危機 속에서 더욱 巨額으로 蓄積되고 있다. 이 「아랍 달러」가 今年 1月 달러危機에 逢着했을 때 歐羅巴에서 強力한 通貨로서 定評이 있는 「스위스·프랑」을 求得하기 위해 急激히 流出되어 結局 「스위스·프랑」을 變動換率制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르크」를 위해 西獨市場으로 殺到하여 西獨連銀(약 90億 달러)을 뒤흔들어 놓은 實績마저 있다.

그러므로 國際通貨體制的 安全과 安定化를 위해서 國際金融機關은 中近東에 蓄積된 過剩資金을 急速히 吸收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方策의 하나로 歐美各國의 政府나 民間으로부터 “中東投資資金풀案”이 提唱되고 「오일 머니」를 隣接國家의 開發投資로 誘引하려고 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아랍 달러」는 하루 속히 規制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結局 「아랍 달러」가 國際通貨의 行方を “콘트롤”하는 事態까지 빚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問題는 또하나의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그것은 即 이란이 蘇聯에 天然가스를 供給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란은 그 代價로 蘇聯으로부터 7億2,000萬弗의

大製鐵 「콤비나트」를 獲得했다.

한편 이란은 國有化에 앞서서 蘇聯과 友好, 協力條約을 締結하고 이란의 石油開發과 原油를 購入한다는 約束을 주고 받았다. 이는 이란과 이란이 蘇聯과 가깝다는 것을 意味한다. 더우기 蘇聯은 「튜멘」 油田 등 「시베리아」의 에너지資源을 美國이나 日本에 開發시키고 그 대신 開發된 原油를 美國과 日本에 輸出하고 있다.

이처럼 蘇聯은 地理的으로 蘇聯中心部와 가까운 中東에너지를 輸入한다는 所謂 「三角政策」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1970年の 結計에 의하면 歐羅巴는 石油輸入의 90%를 中東과 北아프리카에 依存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의 石油國有化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美國과 EC는 서로 競爭者의 立場에서 있다. 따라서 에너지問題, 특히 石油問題는 國際通貨問題와 重要한 關聯性이 있을 뿐만 아니라, 蘇聯 EC 등도 끼어들어 더욱 복잡한 政治的 關係를 形成하고 있다.

더구나 安全保障을 確立하고 NATO 體制를 確立하는 것과 에너지政策을 리드하는 것은 表裏一體의 關係로 까지 發展하고 있다. 아울러 蘇聯은 中東과 密接한 關係를 맺음으로써 自由陣營에 못을 박으려는 날카로운 戰略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中共은 亞細亞 및 아프리카地域에 勢力을 뻗쳐 보려는 現時點에서는 더욱 그 趨勢에 注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同時에 蘇聯이 提唱하는 亞細亞集團 安全保障이라는 問題도 實은 에너지問題와 表裏關係를 맺고 있다면 果然 「에너지」는 軍事, 政治, 外交問題에 있어서 無視 못할 核心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對外情勢下에서 日本은 도대체 어떤 길을 擇하고 또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의 問題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日本은 現在 全에너지의 65% 내지 70%를 石油에 依存하고 있다는 事實을 想起한다면 石油資源과 日本이라는 課題의 解決은 물론 보다 徹底한 資源政策 및 에너지政策에 沒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